

내달 20일 이후 프로야구 개막

KBO, 정규시즌 연기기로
개막일은 아직 알 수 없으나
내달 7일부터 연습경기 검토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 공헌사업 등 추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규시즌 개막을 4월 20일 이후로 연기했다.
KBO는 24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0년 KBO 제2차 이사회를 열었다. 정규 시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KB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야구팬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규시즌 개막을 4월 20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KBO의 2020시즌 개막 예정일은 3월 28일

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했다.
그리고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막일을 4월 20일 이후로 다시 한번 미뤘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대한 개막을 미룰 수 있는 기한이 4월 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막일은 아직 알 수 없지만, 4월 7일부터는 구단 간 연습경기를 검토한다. 현재 예정된 학교 개학일(4월 6일) 이후 코로나19의 사회적 상황을 지켜본 뒤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각 구단은 팀 간 연습경기 대신 자체 청백전만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단 간 연습경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 내에서 치러지는 청백전만으로는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팀 간 연습경기가 펼쳐지면, 선수들의 개막 준비에도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KBO는 구단 간 연습경기를 직접 짜고, TV 생중계도 편성할 예정이다.
류대환 사무총장은 "구단 간 연습경기 일정은 속박 없는 당일치기를 기본전제로 한다. 남부와 북부 등 인접 지역을 기준으로 편성될 수 있고, 하루에 5경기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정부가 정한 4월 5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적극 준수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선수단과 구장을 안전하게 관리해 개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향후 개막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가적 위기 상황에 KBO 리그가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공헌사업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KBO 의무위원회를 신설, KBO 리그 관계자 간 야구 외의 정보 공유 및 선진화를 통해 리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뉴시스

비에도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KBO는 구단 간 연습경기를 직접 짜고, TV 생중계도 편성할 예정이다.
류대환 사무총장은 "구단 간 연습경기 일정은 속박 없는 당일치기를 기본전제로 한다. 남부와 북부 등 인접 지역을 기준으로 편성될 수 있고, 하루에 5경기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정부가 정한 4월 5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적극 준수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선수단과 구장을 안전하게 관리해 개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향후 개막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가적 위기 상황에 KBO 리그가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공헌사업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KBO 의무위원회를 신설, KBO 리그 관계자 간 야구 외의 정보 공유 및 선진화를 통해 리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연기되면 KBO리그 축소 안할 수도

114경기 정규리그 일정 소화 가능... 개막후에도 영향 있으면 무관중 경기 검토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상 개최 여부가 KBO리그 경기 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0년 KBO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정규 시즌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정규시즌 개막을 4월 20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리그의 2020시즌 개막 예정일은 3월 28일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앞서 4월 중 개막으로 연기를 결정했고, 이날 이사회에서는 4월 20일 이후

로 미루기로 했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개막은 미뤄졌지만, 144경기 체제 가능성은 남아있다.
도쿄 올림픽 연기론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KBO는 올해 올림픽 기간 동안 18일간의 휴식을 뒀는데, 만약 올림픽이 연기되거나 열리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개막이 늦춰져도 144경기를 소

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류대환 사무총장은 "현재는 올림픽 휴식기가 있는데, (올림픽이 연기된다면) 페넌트레이스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O는 이전까지 144경기 정상 개최를 목표로 했지만, 개막이 계속 연기된다면 리그 축소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KBO 관계자도 "무리해서 144경기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일단 팬과 선수단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개막 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관중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관중을 (관중석의) 30% 50% 정도만 받는 등 단계별로 관중을 증가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코로나19 극복 기원'

내달 10일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올스타전
10명 출전해 '극복'·'기원' 팀 나눠 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올스타전이 열린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바둑계 분위기를 바꾸고 바둑팬들에게 '반의경기'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과 2016·2017년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올스타전에는 10명의 바둑리거가 출전해 '극복팀'과 '기원팀'으로 나눠 승부를 펼친다.
올스타전에는 한국물가정보 신민준 9단을 비롯해 쉐트리온 신진서 9단, 포스코케미칼 변상일 9단, 홈앤쇼핑 이영구 9단, 수려한 합천 박영훈 9단, 화성시교리요 박정환 9단, 사이버오로 나현 9단, 정관장황진단 이동훈 9단 등 8개팀 주장과 유일한 여자 바둑리거 쉐트리온 최정 9단이 함께한다.
Kixx는 주장 김지석 9단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며 윤준상 9단이 출전한다.
2019-2020 KBO리그 우승팀 한국물가정보 한종진 감독과 준우승팀 쉐트리온 백대현 감독이 양 팀 감독을 맡았다.
27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수 선발식에서 첫 지명권 추첨과 신수 지명식을 통해 팀을 구성한다.
기원에 열린 올스타전은 단판 승부로 승패를 가렸지만 이번 올스타전은 연습전 방식으로 최소 5대국, 최대 9대국로 바둑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다음달 10일 첫 대국을 시작으로 11일부터 매주 주말 오후 7시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코로나19 극복 기원'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올스타 연습전의 제한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우승상은 1000만원이며, 상금과 별도로 매 대국마다 80만원의 대국료가 지급된다.
2003년 한국드림리그를 모태로 한 바둑리그는 2006년부터 14년 연속 KB국민은행이 메인 타이틀을 후원하면서 국내 최대 기점으로 자리잡았다.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정규리그 1위 한국물가정보가 신생팀 쉐트리온에 종합전적 2 대 1로 승리하면서 창단 5년 만에 첫 통합우승을 거머쥐었다. /뉴시스

"도쿄올림픽 재연기는 어렵다"

日 올림픽 조직위 "2년 연기해야
1년으로는 코로나19 수습 어려움"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둘러싸고 '1년 연기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는 2년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년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4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다카하시 하루유키(高橋治之)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이사는 이 매체의 취재에 응해 "운동선수 퍼스트"보다 '인류 퍼스트'다. 1년 후에도 감염이 종식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재연기는 어렵기 때문에 2년 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2일(현지시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앞으로 4

주 내로 연기를 포함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쿄올림픽은 사실상 연기 수순에 돌입했다.
특히 세계육상연맹이 내년 8월 열리는 육상 세계선수권 대회 일정 변경을 검토하면서 '1년 연기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23일 덕 파운드 IOC 위원도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카하시 이사는 "향후 남반구에서도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1년 연기는 낙관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전체에서 감염 확산이 종식된 후 개최해야, 바이러스에 이긴 후 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30일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다.
그는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론이 부상하기 전부터 연기론을 주장해왔다. "내년 스포츠 일정은 이미 굳혀졌다. 2년 연기가 (일을 진행하기에) 매끄럽다"고 피력해왔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잠시 멈춤!

- 1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 2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뽀뽀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 3 나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 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잠시 멈춤!
거리두기!

**코로나 19 위기극복,
우리 모두 함께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외출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GUNSAN CITY